

[서평]

진진영 著 『이쾌대의 삶과 작품으로 재고찰한  
한국의 근대 예술과 전쟁, 그리고 망명』\*

김수지  
메리워싱턴대학교  
부교수

저자 진진영은 한국근대미술가이자 1953년 북한으로 망명한 이후 대중들에게 잊혀졌던 화가 이쾌대(1913-1965)를 주제로 한 『이쾌대의 삶과 작품으로 재고찰한 한국의 근대 예술과 전쟁, 그리고 망명(Art, War, and Exile in Modern Korea: Rethinking the Life and Work of Lee Qoede)』를 올해 영문으로 출판했다. 저자는 이쾌대의 <군상>시리즈를 사회주의 리얼리즘미술과 멕시코 벽화운동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매우 탁월한 연구 주제를 책으로 승화시켰다. 특히 1953년 8월 29일 이쾌대의 북한 귀환 이후의 시기를 포함함으로써 기존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영역을 확장하고, 한국 현대사의 이념 갈등과 정치 예술을 새롭게 조명한 책이다. 북한에서 발행된 제1차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접근은 1948년 남북분단 전후 시기의 한국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과 다른 사회적 리얼리즘(social realism) 미술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서사를 새롭게 구성할 가능성을 열어주며, 멕시코 벽화 전통과 조선민

\* Jinyoung Jin, *Art, War, and Exile in Modern Korea: Rethinking the Life and Work of Lee Qoede*,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25.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선전 미술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 또한 조명한다.

저자는 이쾌대의 작업을 세계적 차원의 사회적 리얼리즘 미술 담론 안에서 고찰함으로써, 한국 근현대미술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비판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일본에서 유학하였고, 1953년 북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이쾌대는, 그동안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유럽 미술 전통의 연장선상에서만 조명되어 왔다. 한국학계는 이쾌대를 ‘일북작가’로 규정하며 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왔으나, 저자는 보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그의 작품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유럽 미술의 영향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과 멕시코 벽화운동 등과의 관련성을 통해 이쾌대의 예술을 새로운 맥락에서 조망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이쾌대의 작품세계를 세계의 사회적 리얼리즘 미술운동의 흐름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보다 실증적이고 확장된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사회학적 미술사 방법론에 입각하여 기존연구와는 차별화된 시각에서 이쾌대를 조명한다. 첫째, 그간 이쾌대를 북한과의 정치적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으로 평가해온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1948년 전후의 한국 정치사적 사건들을 분석하고 이를 이쾌대의 동시기 회화와 연관지음으로써, 작품에 내재된 정치적 맥락을 구체화하였다. 셋째, 이쾌대의 형이자 1925년 조선공산당에 가담한 이여성(1901-?), 멕시코에서 15년간 활동한 뒤 일본으로 귀국한 일본 화가 기타가와 타미지(北川民次, 1894-1989), 그리고 멕시코의 대표적 사회주의미술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1886-1957)를 이쾌대의 예술경력에 영향을 준 주요 인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넷째, 멕시코·미국·일본 등지에서 전개된 사회적 리얼리즘 미술운동에 대한 개괄적 고찰을 통해 이쾌대의 미술사적 위치를 국제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였다. 다섯째, 이쾌대의 ‘군상’

연작을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치적 폭력의 시각적 증언이자 역사적 기록으로 해석하였다. 여섯째, 멕시코와 북한예술가 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을 고찰하고, 특히 1959년 북한의 우의탑 벽화에 나타난 멕시코 벽화 양식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쾌대의 국제적 위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여섯 가지 방법론적 시도는 서론에서 제시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본문의 다섯 개 장에서 체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방식으로 전개된다.

저자는 1차 자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쾌대가 북한으로 망명한 이후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였고, 책에 수록된 도판 자료 역시 논지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제1장은 1948년 이후 한국 정치상황의 급변, 한국전쟁, 그리고 냉전 속에서 이쾌대의 삶을 조명한다. 저자는 이쾌대가 공식적으로 공산당 당원은 아니었지만, 지식인들 사이에서 모더니티의 또다른 형태로 인식되었던 좌파적 성향을 선호했다고 서술한다. 유럽에서는 1917년 러시아혁명을 기점으로 러시아구성주의, 추상미술, 국제주의 건축 등 다양한 모더니즘 사조가 전개되었으나, 이쾌대의 작품은 이러한 모더니즘 계열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충적 논의가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이승만정부의 ‘일민주의’ 정책 아래 이쾌대는 1949년 좌익성향의 예술가 및 지식인들을 교화하기 위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이후 반공포스터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에는 조선미술동맹에 강제 편입되어 김일성과 스탈린의 초상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하였으며, 전쟁 중 포로가 되어 부산과 거제도 수용소를 거친 뒤 결국 북한으로 망명하였다. 주목할 점은, 저자가 이러한 정치적 행적에도 불구하고 이쾌대를 일관된 ‘공산주의자’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이쾌대의 복합적 정체성과 역사적 상황에 대한 보다 유연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제2장에서는 이쾌대와 이여성, 기타가와 타미지, 디에고 리베라 간의 예술적·사상적 연관성을 본격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기타가와타미지가 이쾌대의 작품 성향에 미친 영향은 1939년 일본 미술잡지 『형성미술』(形成美術)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두 작가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이쾌대와 기타가와와의 연관성을 작품 비교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찰하며, 기타가와가 멕시코미술과 이쾌대 사이의 매개자로 기능했음을 다양한 시각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한다. 특히 기타가와와의 〈멕시코: 슬픈 하루〉(도판 48)와 이쾌대의 〈운명〉(도판 49)에 대한 비교 분석은, 두 작가가 고통받는 민중의 현실을 공통된 주제로 삼았다는 점과 화면구성의 유사성 등을 통해 이들의 예술적 세계관이 상통함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제3장에서는 1930~40년대 이쾌대의 작품을 중심으로, 멕시코 정치미술, 미국의 소셜리얼리즘, 그리고 일본 사회주의미술과의 동시대적 교감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이쾌대의 예술이 단지 지역적·국내적 맥락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 미술담론과 긴밀하게 호흡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디에고리베라가 뉴욕노동조합을 위해 제작한 이동벽화가 1946년 『조형예술』 창간호에 게재되었으며(도판 60), 이쾌대의 〈군상 IV〉와의 구성적 유사성은 두 작가 간의 시각언어와 정치적 주제의식의 접점을 시사한다. 또한, 1947년 『예술부락』 4월호에 소개된 필립 에버굿 및 리베라의 미국 전시 소식을 통해, 멕시코 및 미국의 사회적 리얼리즘 미술이 해방기 한국미술계에 유입되고 있었음을 밝혀낸다. 아울러 저자는 멕시코 벽화가 리나 라조(Rina Lazo, 1923-2019)의 1957년 평양 방문 기록을 『조선미술』에서 확인함으로써, 이쾌대와 멕시코 벽화운동 간의 상호연계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를 추가한다.

제4장에서는 〈군상〉연작(1948)을 기존의 해석과는 차별화된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한다. 저자는 이 연작이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격동과 은폐된 역

사, 특히 민간인 학살의 현실을 시각적으로 증언하는 작업임을 주장하며, 예술이 역사 앞에서 ‘증인’으로서 수행해온 역할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 1746-1828),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아실 고르키(Ashile Gorky, 1904-1948) 등의 작품과 이쾌대의 작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그의 예술이 단순한 미적 재현을 넘어 역사적 기록이자 시각적 증언으로 기능함을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쾌대의 주요작품 가운데 상당수는 미술사학자 김복기에 의해 제목이 부여되었다. <청색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1948-1949), <거지>(1948), <카드놀이 하는 연인들>(1930년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김복기에 의한 이러한 명명은 대중의 정서적 호응을 유도하는 동시에, 이쾌대의 정치적 정체성을 비가시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후 이들 제목은 학계와 전시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사실상 정착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명명 관행이 작품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유도하는 일종의 가시적 프레임으로 기능함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며, <군상>연작에 대해 ‘인민’, ‘평민’, ‘대중’ 등 유사하되 상이한 개념을 활용한 명명 시도를 통해 보다 확장된 작품 해석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제5장은 이쾌대의 월북 이후의 행적을 자세히 다룬다. 저자는 『로동신문』에 게재된 기사들을 통해 평양의 상징적 조형물인 우의탑의 건립과정과 더불어, 198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친 내부벽화의 재복원 과정을 면밀히 추적한다. 이는 우의탑 벽화의 형성과 변천을 정치적·미술사적 맥락 속에서 조망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인용해 온 제한된 자료에 의존해온 것과 달리, 저자는 이쾌대가 1946년에 작성한 글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 기존 해석이 해당글에서 드러난 북한 예술환경에 대한 이쾌대의 실망감을 강조해온 반면, 저자는 그가 동일한 글에서 북한정부의 예술가 지원정책, 특히 수당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에 주목함으로써, 일차 사료의 단선적 해석과

무비판적 반복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1930~40년대 전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멕시코 벽화운동과 사회적 리얼리즘이라는 국제적 미술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한 월북작가 이쾌대. 그러나 결국 “사회적 리얼리즘”에서 북한체제 하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운명과 예술 세계를 탈이념적·탈경계적 시각에서 재조명한 이 책은 단순한 작가연구를 넘어,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공백을 메우고 왜곡된 서사를 바로잡으려는 치열한 시도이자 깊은 성찰이다. 오랫동안 정치적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던 이쾌대의 예술을 보다 확장된 지평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_김수지\_ Skim8@umw.edu